

구주의 생산 기지인 터키와 루마니아의 섬유 공장들

불황으로 연달아 폐쇄

구주(歐洲) 브랜드 어패럴(brand apparel)의 생산 기지인 터키(Turkey)나 루마니아(Rumania)의 중소 섬유 산업이 불황으로 시달리고 있다. 터키나 루마니아는 그동안 EU 섬유 제품 생산 기지로서 순조롭게 성장해 왔는데, 2008년 가을부터의 금융 위기 영향으로, 급격히 주문이 줄면서 공장들이 연달아 폐쇄하고 있다.

1. 터키 섬유 산업

터키 섬유 산업은 EU나 미국 브랜드 어패럴의 생산 기지로서 커 왔으며, 터키는 원래 구주로 수출되는 양모와 면화의 산지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섬유 산업이 번창해 왔다. 또한 피아트나 르노의 자동차 공장이 있는 북서부의 도시 부르사(Bursa)를 중심으로 화학 섬유가 많이 생산되었다.

섬유 기업은 관련 기업까지 포함하면 약 35,000개사(社)가 있다고 한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그 중에서 83개사는 터키 제조업의 상위 500개사의 랭킹(ranking)에 들어가는 대기업이며,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졸, 상코, 사반쥬’ 등과 같이,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큰 재벌들의 산하(傘下)에 들어 있다.

터키에서 섬유 산업은 오랫동안 경제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수출액의 1/3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되어 있다.

터키 섬유 제품의 수출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과 텍스타일 중심이며, 전 생산량의 약 75%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

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은 독일이며, 텍스타일의 최대 수출국은 이탈리아로 되어 있다.

2007년도 수출고는, 의류 제품이 119억 달러로 세계에서 3위이며, 텍스타일은 77억 달러로 세계에서 7위였다. 면화 생산은 세계에서 7위이며, 그중에서도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 생산고는 세계에서 2위이며, 이들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데님(denim) 생지나 홈 텍스타일 제품은, 구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또한 터키 국내에 원료로부터 봉제까지 모든 공정을 다 갖추고 있으며, 단추나 액세서리(accessory) 산업도 완전히 갖추고 있다. 터키 섬유 기업은 ISO 9001, ISO 9002의 인증을 받고 있으며, 저 코스트국(低 cost國)의 섬유 제품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생산 코스트를 삭감하고, 고부가 가치화(高附加 價值化), 브랜드화(brand化)하고 있으며, 신규 시장도 열심히 개척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가을부터 일기 시작한 금융 위기의 영향을 받아, 구미 브랜드 제품의 판매가 줄고, 구미 메이커가 원부자재(原副資材)의 구매값을 줄이고자, 그동안 터키로 주문해오던 것을 저 코스트국으로 바꾸기도 하여, 터키 섬유 공업의 생산량은 크게 줄고 있다.

그런 여파로 인하여 2008년 12월에는 세계 3위의 홈 텍스타일(home textile) 기업인 Tekerekoglu Tekstil사가 도산하여, 종업원 1,800명을 해고하였다. 이 회사는 ‘엘레강트(ELEGANT)’ 브랜드로, 세계 54개국에 수출하던 유명 기업이었는데, 약 4,200만 달러의 부채가 있었으며, 부채를 갚기 위하여 5개 공장 중 2개 공장을 매각하고, 나머지 3개 공장도 다른 부동산 자산과 끼워 함께 매각할 것으로 보도되어 있다.

또한 의류(衣類)용 폴리에스터·필라멘트의 대기업인 손메즈 필라멘트사(Sonmez Filament 社)는 생산을 당분간 정지하였고, Edip Iplik사는 2008년 12월 31일자로 방직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많은 기업이 공장의 폐쇄를 단행하고 있다.

앞으로 터키의 재벌계의 큰 기업들은 생산 코스트를 깎아내리기 위하여, 보다 더 낮은 코스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앞으로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 기업의 再構築 再編成)해야만 할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면 도산이나 폐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루마니아 섬유 산업

루마니아 섬유 산업은, 이 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weight : 重要度)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의 전 수출고는 294억 180만 유로(euro)였으며, 섬유·의복·구두의 수출이 54억 9810만 유로로서 전체 수출액의 18.7%를 차지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섬유 산업은 언어에 있어서 비슷한 이탈리아나 프랑스 어패럴 산업의 투자로 생산 설비가 근대화하고 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어패럴 기업은, 메이드 인 이탈리아나 메이드 인 프랑스로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루마니아로 운반하여, 루마니아에서 중간재를 생산하고,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다시 주문자의 모국으로 수출하여 제품을 완성하여 모국의 메이드 인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표시하는 프로세스를 거쳐 왔다.

그러나 2005년에 EU가 섬유 제품의 수입 할당 제도를 폐지하자, 파도처럼

밀려드는 값싼 중국 제품에게 현지의 생산 기업들은 대항할 수 없어, 상당한 수의 섬유 기업이 폐쇄되었다고 보고 있다.

루마니아 섬유 산업의 종업원 수는 2007년 말에 342,000명이었는데, 2008년 7월 말에는 312,500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더욱이 2009년에는 해외 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으므로 수출이 크게 줄어, 중소 섬유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폐쇄하여 270,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